

# ‘별들의 고향’ 이장호 감독, 광주에서 모험 떠난다

**영화 ‘서평·흥중’ 제작**  
**고아·한센인의 어머니**  
**독일 선교사 서서평에**  
**최흥중 목사 이야기도**  
**각본 작업 중...연말 촬영**

**5월 이장호아카데미 개원**  
**시민 연기자·스텝 육성**  
**한국 영화판 투입 할것**



1914년 광주제중원(기독병원 전신) 앞에선 서서평(왼쪽).

광주 예술의 거리 사무실에 들어서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 날의 소설가 최인호, 영화배우 안성기, 그리고 이장호(70) 감독이다. 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바람불어 좋은 날’(1978) 촬영장 모습이다.

‘별들의 고향’의 이장호(서울영상위원회 위원장·신상옥추모사업회 이사장) 감독이 광주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그는 오는 5월 광주 예술의 거리에 ‘이장호아카데미’를 정식 개원하고, 영화도 제작한다. 서울 사무실을 그대로 옮겨온 공간은 책들로 가득했다. ‘별들의 고향’ 등 대표작의 필름과 사진 자료들도 눈에 띄었다.

이 감독을 광주로 불러들인 건 ‘조선의 성녀’로 불리는 독일 출신 선교사 서서평(엘리자베스 웨빙·1880~1934)이었다. 이 감독은 2013년 19년만에 영화 ‘시선’을 개봉했다. 광주의 지인들이 영화 홍보에 힘을 써주었고, 광주에서 영화 한편 찍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그 때 소개 받은 인물이 서서평이다.

“그녀가 묻혀 있는 양림동 선교사 묘지를 방문하고 여러 자료를 접했다. 너무 의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였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 100년 동안 숨어 있던 이야기가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세월호 사건이 막 터져 누구나 치유를 바라고 있던 때이기도 했다. 인권도 없었던 조선 여자와 백성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보내고 13명의 딸을 입양한 그녀의 삶은 너무 감동적이었다.”

광주 양림동 등에서 22년간 머물렀던 서서평은 고아들의 어머니였다. 한센인 아들을 양자로 들이고 행려병자, 한센인, 거지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다. 제중원의 간호사로서도 활동했으며 한국 최초의 여자 신학교인 광주 이일학교를 설립했다. 그녀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졌다. 그녀가 남긴 건 ‘덮고 있던 담요 반조각과 일주일 품값에 해당하는 돈 7전, 강냉이 가루 두 홉’뿐이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3일 광주 예술의 거리 ‘이장호아카데미’에서 만난 이장호 감독은 광주에서 한국 영화판이 필요로 하는 스텝과 연기자 등 다양한 인재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이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서평·흥중’(가제)은 서서평이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던 ‘민초들의 아버지’ 최흥중 목사의 삶도 함께 다룬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서서평·최흥중 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손창환 변호사)가 발족했고 시나리오 개발 비용으로 4000만원을 모금했다.

“입권택 감독님이 자기 스타일을 구축해가는 스타일이라면 난 만드는 방법이 아 마추어다. 매년 작품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있다. 기질 상 그렇다. 이번 작품은 제작 방식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브라질 영화 ‘City of God’는 현지 아이들이 직접 뽑아 영화에 등장시켰다. 광주 시민들을 대거 영화에 투입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발상은 이장호아카데미 개원으로가

지 확장됐다. “연기자, 스텝을 키우는 게 출발이다. 진정한 광주 시민이 만드는 영화가 되는 셈이다. 불씨를 일으켜서 광주가 영화에 관심을 갖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 연출부 조감독을 많이 양성해 ‘메이드 인 광주 시네마’에 직접 투입하고 싶다. 키워진 스텝들은 광주에서 제작되는 영화 뿐 아니라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전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기본 교육은 한예중 출신 단편영화 감독들이 진행할 거다. 서울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판에서 모험일 지도 모른다. 각오하고 있다.”

현재 시나리오는 ‘무방비 도시’(2007) 등을 쓴 이원식 작가의 초고가 나온 상태로 수정작업이 진행중이다. 환태평양영화제 법인 이사를 맡고 있는 이 감독은 미국 쪽

영화인들과 미국 여배우 캐스팅 등 합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계획이다. 늦어도 금년말에는 촬영에 들어간다는 생각이다. “일단 1920년대 광주가 내 눈에 선히야 한다. 서서평과 최흥중의 이야기를 하나씩 맞춰가다 보니 영화를 만드는 게 퍼 줄같다. 다뤄져야 하는 게 적으려 한다. 매끈하게 만들기 보다는 진실을 담으려 한다. 평론가들은 나에게 스타일이 없지 않냐는 작가라고 한다. 영화가 거칠지만 신선하다고 평가한다. 광주의 모험과도 맞닿아 있지 않을까.”

신상옥 감독 조감독을 거쳐 ‘별들의 고향’으로 데뷔한 이장호 감독은 지금까지 딱 스무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40년 영화 인생을 고려하면 과작이다. 영상자료원 선정 ‘한국영화 100선’ 1위 안엔 그의 작

품이 3편이나 포함됐다. ‘바보 선인’, ‘바람 불어 좋은 날’, ‘별들의 고향’이다.

“내 영화는 대중적인 생명력과 작가적 생명력을 갖고있는 작품으로 나뉘는 것 같다. ‘바보 선인’은 검열에 계속 걸리면서 원래 시나리오대로 찍을 수 없었다. 영화 첫 부분에 내가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장면이 있는데 그걸 감독 없이 찍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바보선인’은 오랫동안 창고에 처박혀 있다 1년만에 대체 프로로 상영됐던 영화다 당시 대학생들에게 인기를 모으면서 화제가 됐다. 이런 저런 이유로 투자 받기가 어렵게 되면서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같은 현실 타협적인 작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 나이에 이제 대중 생명력은 부질없다. 모처럼 온 기회다. 죽어서도 기억되는 영화를 남기고 싶다.”

이 감독은 자신의 영화 인생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한다. 영화 검열관이었던 아버지 무릎에 앉아 보던 숏한 영화들이 무의식에 입력됐고, 커서는 아버지의 서가에서 읽은 책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특히 입시를 앞두고 읽은 톨스토이의 ‘부활’은 잊을 수가 없다. 이후 많은 소설들을 읽기 시작했고, 창작의 힘이 되었다. 지금 소망은 어릴 때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는 것이다.

초·중·고를 함께 다닌 오랜 친구 최인호와의 추억도 들려줬다.

“대학노트에 쓴 인호의 악필을 해독할 수 있는 건 인호의 형과 나밖에 없었다. 정비서 등 대가들만 쓰던 신문 연재 소설을 인호가 쓴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 ‘별들의 고향’이 내 데뷔작이 됐고, 정주의 집에 함께 머문 적이 있는데 내가 글을 쓰면 인호가 고쳐주는 식이었다. 내가 상상하고 공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인호는 내 글이 엉뚱한 구석이 있다고 하더라.”

이 감독은 “인호의 유작집 제목이 ‘눈물’인데 ‘나의 눈물과 함께하며’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권 내고 싶다.” 말했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 폴리와 함께하는 나는야, 꼬마 다빈치

광주비엔날레재단, 아동센터 교육 진행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예비 사회적 기업과 함께 오는 6월까지 지역 아동센터 7곳 18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 폴리와 함께하는 나는야, 꼬마 다빈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현대자동차의 메세나 활동의 일환인 ‘토요 아트 드라이브’ 공모에 예비 사회적 기업 ‘오즈 하우스’가 기획한 광주폴리 교육 프로그램이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교육 장소인 거시기홀과 폴리 도슨트 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또 광주폴리 태동 배경과 의미, 문화·건축적 가치 등에 관한 특별 강의로 진행한다.

오는 11일 광주 금호지역아동센터 어린이 20여 명이 ‘광주폴리와 함께하는 나는

야, 꼬마 다빈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교육은 광주폴리 강의와 폴리 투어, 체험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에덴지역아동센터(18일), 군산 화현지역아동센터(25일), 목포 은혜지역아동센터(5월2일), 정읍 셋별지역아동센터(5월16일), 광주 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6월20일) 등 6월까지 5개의 아동센터가 광주폴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매월 셋째주 화요일 인문학에 빠져 봐요

광주시립미술관, 21일 죽설현 박태후씨 초청 강좌

광주시립미술관은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달 한차례 2015년 상록인문학강좌를 개최한다. 지난 2010년 개설된 상록인문학강좌는 그동안 미술과 인문학,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아왔다.



매달 셋째주 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상록인문학강좌의 첫번째 강사는 죽설현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후(21일·사진)씨다. 박 씨는 조경미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5월에는 우리나라 문화 최고 전문가인 윤영수 가회민화박물관 관장에게 전라도 민화에 대해서 들어볼 예정이다. 6월 프랑스 대학원을 역사학자 백인호 서강대 사학과 교수가 캐리커처로 이야기하고, 7월에는 우리 남도를 대표하는 민족적 자아의식에서 발생한 동국진체(서예)를 유교 철학자 조민환 성균관대 동아시아학과 교수가 철학적으로 해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예술가 코디최, 박구영 전남대 철학과 교수, 문화전문가 김형석의 강좌가 이어진다. 강좌는 무료다. 062-613-7155.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 진·통·신·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 227-7575